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싫다는 2030 여성

에스프레소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요즘 또래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거론되는 인물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트럼프는 지난달 20일 취임 이래 보편 관세 도입, 화석연료 산업 부활 등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굵직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자산이 출렁이니 관심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돈을 잃고 번 것과 별개로 친구들은 하나같이 말했다. "내가 미국인이었어도 트럼프 찍었을 것 같다"라고. 그의 지지자들이 일으킨 의사당 폭동을 잊어서가 아니다. 검사 출신이라며 상대를 범죄자로 매도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비전을 내놓지 못했던 해리스보다, 자국민을 위해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불법 이민을 막겠다는 트럼프가 훨씬 매력적이라는 것이다. '여의도 사투리'로 비유하면 '먹고사니즘'에 높은 점수를 줬다고 할 수 있겠다.

2022년 대선에서 2030 세대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는 건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젠더 갈등'으로 진보에 등 돌린 2030 남성들의 과반 지지에 힘입어 신승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선거에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포인트가 있다. 그때 국민의힘은 2030 여성층에서도 보수 정당 사상 역대 가장 많은 득표를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20대 이하 여성 33.8%, 30대 여성은 43.8%에 달했다(출구조사 기준). 참고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얻은 표는 각각 30.6%, 34.7%였다.

청년 여성들의 지지는 국민의힘이 '남녀 갈라치기'로 승리했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물론 성별 대결이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긴 했다. 다만 남녀가 모두 이탈하게 한 요인도 있었다. 바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과잉이다. 당시 정부 여당은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검찰 개혁에 매진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연일 뉴스를 장식했다. 180석을 검찰 잡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밀어붙이는 데나 썼다. 보통 사람들은 살면서 검사 만날 일이 거의 없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자영업 폐업이 속출하는 와중에도 검찰 개혁이라는 허상을 좇은 민주당의 정치 과잉은 청년층 이탈로 이어졌다.

> 초기엔 '탄핵 찬성'으로 보였지만
> 최근 여론조사는 다른 결과
> 절반가량이 선호 지도자 "없다"
> '침묵하는 2030'이 다시 늘고 있다

비상계엄과 탄핵 소추라는 거대한 사건은 2030 세대를 광장으로 이끌었다. 특히 2030 여성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의 주역으로 부상하기도 했다. 보통이라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반사이익을 고스란히 챙겼어야 정상이다. 각종 여론조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숫자는 응원봉 든 2030 여성들로 가득한 탄핵 집회 사진이 말하지 않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침묵하는 다수'의 존재다. 한국갤럽 1월 통합 여론조사에 따르면 2030 여성들이 가장 지지하는 정당이 민주당인 건 틀림없다. 지지율은 20대 이하 48%, 30대 46%로 각각 12%, 21%인 국민의힘에 훨씬 앞섰다. 그러나 무당층도 34%, 28%에 달했다. 40~50대 여성의 2~3배 규모다. 장래 정치 지도자로 누구를 선호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더 명확했다. 2030 여성의 3분의 1 정도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다. 그런데 20대 이하 여성 56%, 30대 여성 47%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 비율은 같은 세대 남성들도 비슷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외연 확장을 위해 '경제 우클릭'을 강조하고 있다. 청년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대표 재임 기간 내내 국무위원 탄핵,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정치 이슈에 매몰돼 있다가 이제 와서 경제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말의 진의를 의심하는 것이다. 비상계엄의 충격이 옅어지고 지난한 정치적 공방이 계속되면서 2030 세대의 정치적 감정은 그 이전으로 회귀하고 있는 듯 보인다. 국민의힘도 싫고, 민주당도 싫다는 정서다. 결국 더 진정성 있는 비전을 보여주는 쪽이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 것이다.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568]

전기 눈사람

눈덩이 세 개를 굴려 눈사람을 만들고 '조각품'이라고 전시하면 고개를 갸웃할 일이다. 하지만 그 눈사람이 야외 조각 공원에서 사시사철을 모두 겪으며 1년 내내 서 있다면 다른 얘기가 된다.

스위스 출신의 미술가 듀오 피터 피슐리(Peter Fischli·1952~)와 데이비드 와이스(David Weiss·1946~2012)는 1978년 처음 만나 록밴드를 결성했다. 이후 점차 사진과 영상으로 작업 반경을 넓히면서 와이스가 세상을 뜰 때까지 협업을 이어갔는데, 무엇을 하든 그들 작품에는 위트와 유머가 넘쳤다. 1987년 독일 자르브뤼켄의 화력발전소에서 발전소 앞에 세워 둘 조각을 의뢰받았을 때 그들은 '녹지 않는 눈사람'을 만들기로 했다. 듣기만 해도 열기가 느껴지는 화력발전소와 한겨울의 눈사람이라니 기상천외한 조합 같지만, 사실 눈사람을 지켜주는 건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력이었다. 피슐리와 와이스는 냉장고 안에 구리로 만든 둥근 뼈대를 세우고 지속적으로 냉각 팬을 돌려 구리 표면에 서리가 맺히게 해서 눈사람 모양을 만들어 냈다. 냉장 장치는 물론 발전소에서 나오는 잉여 전력으로 유지했다. 문제는 얼굴이었다. 몸통은 자동으로 형성되지만, 눈과 입은 매일 한 번씩 사람이 그려줘야 했다.

피터 피슐리와 데이비드 와이스, 눈사람, 1987/2016년. 구리, 알루미늄, 물과 냉장고, 218×128×165㎝,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설치 장면.

2016년, 재제작했을 때는 냉각 기술도 발전해서 가정용 에어컨에 쓰는 소형 압축기 하나로 눈사람의 형성 및 유지가 가능했고 따라서 비용도 줄었다. 30년 만에 되돌아온 눈사람을 보며 사람들은 기후 위기와 발전소의 폐해를 지적하기도 했지만, 피슐리는 이처럼 단순한 비판보다는 전기가 없으면 눈사람도 없는 모순적 현실을 드러낸다.

포스텍 교수·서양미술사

社 說

다시 자기 말 뒤집은 이 대표, 이게 이 대표식 일관성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연설에서 '기본 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또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주 4일 근무제를 제안했다. 주 52시간 예외 인정에 대해선 "장시간 노동과 노동 착취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가 모순"이라고 했다. 최근 내놓았던 입장과 다른 말을 쏟아낸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신년 회견에서 기본소득·주택·대출 등 기본 사회 공약에 대해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며 "심각하게 (재검토를) 고민 중"이라고 했다. "성장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도 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중도층 지지를 얻으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천문학적 세금이 들어가는 '기본 사회 정책'은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다. 그런데 불과 2주일여 만에 이를 다시 들고나왔다.

이 대표는 '주 52시간 예외 허용'에 대해 "몰아서 일하게 해 주자는데 왜 안 되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며 "전향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당내 강경파와 민주노총이 반발하자 애매한 표현을 쓰며 사실상 후퇴했다. 성장을 24번이나 강조하면서도 '노동시간 단축' '주 4일제'를 주장했다. 이를 모두가 잘사는 '잘사니즘'이라고 포장했지만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노선일 뿐이다.

국민은 혼란스럽다. 이 대표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그때그때 말을 바꾸기 때문이다. 작년 당대표 출마 때도 지지율이 떨어지자 성장과 '먹사니즘'을 내세웠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과 남아도는 쌀 매입법, 노조 편향적인 '노란 봉투법' 등을 밀어붙였다. 국가 경쟁력과 미래 먹거리의 핵심인 반도체법과 전력망 확충법, AI 기본법 등 처리는 계속 미뤘다. 기업들이 호소해도 중대재해법 등 친노동·반기업 정책은 계속됐다. 말로만 성장·실용이고 실제는 이념과 포퓰리즘이었다.

이 대표는 정치 개혁을 위한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의원 임기 중 국민투표로 파면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소환제 1호 대상은 바로 이 대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년간 정치권과 국회에서 벌어진 각종 파행과 갈등은 대부분 이 대표 비리 방탄과 입법 폭주로 인해 벌어진 일이다. 이 대표 한 사람 때문에 국정이 수시로 왜곡·마비됐다. 이 대표는 자신이 한 말부터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말 바꾸기'가 이 대표의 '일관성'으로 굳어질 것이다.

국힘 릴레이 尹 면회, 추경·연금개혁은 또 어깃장

국민의힘 전직 지도부 5명이 10일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 반대 시위에 2030세대가 많이 나온 데 고무된 표정이었다고 한다. 비상계엄이 합법적이었고 불가피했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에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등 현직 지도부, 일부 친윤 의원도 윤 대통령을 찾아갔다. 이들은 모두 "개인적 차원" "인간적 도리"라고 했지만, 여당 지도부의 릴레이 대통령 면회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길을 못 찾고 있는 국민의힘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비상계엄 이후 한 달이 지나서야 "불안과 걱정을 끼쳐 국민께 사과드린다" "처절하게 반성하며 변화와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시 여당에서는 "천막 당사라도 치고 신뢰와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자"는 말이 나왔다. 그러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점령군 행세에 대한 반감으로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자 국민의힘에서는 변화와 혁신, 반성은 완전히 사라졌다. 계엄이 정당했다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정책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비판 외에 연금 개혁, 추가경정 예산(추경) 등에서 민주당에 주도권을 빼앗기는 모습만 보여줬다.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추경 투입이 필요하다는 데에 전문가는 물론 여야에 큰 이견은 없다. 연금 개혁을 포함한 현안 처리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는 듯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 입장을 발표했다면서 뚜렷한 이유 없이 여야정 협의체를 연기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재명 띄우기'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데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연금 개혁과 추경은 현실적으로 당장 필요한 국정 사안이다. 이를 처리한다고 누구 한 사람의 공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어깃장만 놓으면 그에 따른 손해가 클 수 있다.

국민의힘은 지지층 목소리에만 반응하다 총선에서 세 번 연속 참패했다. 그 결과가 대통령 한 사람의 탄핵과 또 한 사람의 탄핵 심판이다. 국민의힘이 약속한 변화와 혁신을 보여주지 못하고 지금처럼 퇴행적으로 가면 지난 총선 세 번과 같은 결과를 받아 들 수 있다. 지지층의 표만으로는 결코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한다.

국민 아닌 조국에게 "한없이 미안하다"는 문재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10일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을 "후회한다"며 조국 전 법무 장관에게 "한없이 미안하다"고 했다. 윤 검찰총장의 조씨 수사는 "검찰 개혁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이다. 조씨와 그 가족이 잘못도 없이 억울한 피해를 봤다는 뜻이다.

조씨의 불법과 파렴치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다 드러났다. 고교생 딸이 의학 전문 논문의 저자가 됐다는 것부터 황당한 일이었다. 딸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와 대학 표창장을 제출했고, 아들 입시를 위해선 허위로 만든 서울대 인턴 확인서도 이용했다. 법원은 "입시 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이런 비리가 장관 후보 때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임명이 강행됐다. 공정과 정의를 믿던 국민 상당수가 조씨 위선과 내로남불에 충격을 받았다. 정상인이라면 조씨 발탁을 후회할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이 임기 중 국민과 국가에 피해를 준 것은 헤아리기도 어렵다. 역대 정부 최악의 집값 폭등으로 수많은 청년과 국민을 절망케 만든 사람이 문 전 대통령이다. 그것으로 모자라 임대차 3법 강행으로 전세 대란을 일으켰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으로 좋은 일자리는 급감하고 노인·알바만 늘었다. 반기업·친노조 정책으로 성장률은 떨어지고 빈부 차는 커졌다. 세금 퍼붓기로 국가 부채는 1000조원을 돌파했다. 탈원전으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원전 산업을 벼랑 끝으로 몰았다. 멀쩡한 원전을 없애려고 경제성 조작까지 했다. 4대강 보를 부순다며 개방해 가뭄에 물 부족 사태가 벌어졌다.

김정은의 비핵화 사기극에 적극 가담했다. 김정은은 그 순간에도 핵무기를 늘리고 있었다. 김여정이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라고 하니 바로 법을 만들었다. 중국에 '사드 3불(不)'을 약속하며 군사 주권을 넘겨주기도 했다.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사살당하고 불태워졌는데도 '월북'으로 몰아갔다. 사과해야 할 실정이 태산과 같은데 한 번도 제대로 국민에게 사과한 적 없는 사람이 조국씨에게는 사과를 한다.

구름떼 시민들 한 목소리 "탄핵 무효"

뉴데일리 newdaily.co.kr

바람 방향 바뀌었다 … 헌법재판관들 두렵지 않은가

전한길은 경고했다, 《제2 을사오적》되지 말라고
분수령 15일 광주 집회, 최고 절정 3.1절 집회
위대한 자유대한민국 만들기 국민운동 바람
미리 드러누운 갈대들아, 벌떡 일어나라!

▲ 동대구역 광장에 모인 애국시민들. 대구시 역사상 가장 최대 인원이 모여 "탄핵 무효"를 외쳤다. ⓒ 독자 제공

제2의 인천 상륙·서울 탈환

《21세기 위대한 자유대한민국 만들기》 국민 대부흥 운동! 2월 8일(토) 서울 광화문·여의도·강남역, 동대구, 부산, 인천, 울산, 춘천, 김천, 구미, 2월 9일(일) 전주, 포항. 전국 곳곳 광장을 가득 메운 자유 한국인들의 총궐기!

단순한 집회가 아니었다. 자유 한국인들의 또 한차례의 거대한 문명사적 분출이었다.

국민 대부분은 《오늘의 '한국 내전'》의 본질을 잘 몰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그에 대한 지지율은 달랑 17%였다. 그러나 지금은 《절반 이상(51%)의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 반전(反轉)은 6.25 남침 때의 《인천상륙작전·9.28 서울 수복》을 상기시킨다. 그렇다. 《제2의 인천 상륙·서울 탈환》이었다. 《대한민국을 위대하게》로 가는 반환점이었다.

국민의 각성과 계몽

이 파고(波高)는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각성이었다. 계몽이었다. 르네상스였다.

긴 무감각의 터널을 벗어나, 《2030》이 《586 극좌-4050 전교조 세대·강남좌파·기회주의 언론》의 《최면》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새삼 발견했다.

광화문에서 《배인규 + 통역장교 지망 20대》는 외쳤다. "이제야 알았다. 대통령의 계엄이 우리를 일깨웠다. 《어둠의 세력》을 바로 보게 했다."

또 다른 20대도 선언했다.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 시인은 구(舊) 보수를 《껍데기》라 했다. 광화문 20대가 말한 《껍데기》는 신판 수구 《극좌 + 기회주의 정파·언론》이었다.

이제 광주가 목소리 낼 시간

광주 시장은 금남로에서 《극우》 집회는 금한다 했다. 50여 광주시민은 8일, 근처에서 《첫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2월 15일엔 더 큰 집회가 있다. 전한길 연사도 간다.

이들 자유민주 국민을 뭐, 《극우》? 《광주민주화운동》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의 발로》 아니었나.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용기 내서 전향하라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2030 + 4050일부》의 메시지는 결국, 하나다.

나는,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달랐지만, 보수 아닌 중도적 진보였지만, 그리고 정치에 무관심한 생활인이었지만,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만은 결코 방관할 수 없었다!

이 눈뜸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쪽이 절반을 넘었다. 이들의 대열은 소수파 아닌 다수파다. 보수 고령층만의 고독한 행동이 아니다. 보수·중도·합리적 진보·청장년··6070등 다양한 자유인들의 《손~에 손~잡고》다!

자유대한민국 만세! 우리 승리하리라!

[편집자 주] 윤석열 대통령 지지 전체 51%, 호남 42%, 2030 47%
: 펜앤드마이크, 공정(주) 조사. 2월 2~3일 무선 RDD ARS(100%) 응답률 5.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여심위 홈피 참조.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5년 2월 9일 게재 되었습니다.

NO. 130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

뉴데일리 컨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